

‘하이퍼클로바X’에 멀티모델 더해 글로벌 AI 기업 핵심 파트너 부상

네이버 ‘멀티모델 AI’ 전략

개발 현장에 ‘클로드 코드’ 도입
오픈 AI,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
국내 대기업 중심 AI 확대 속도
향후 네이버와 협력 가능성도

미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글로벌 AI 기업들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엔트로픽이 네이버를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공개 언급한 데 이어 업계에서는 향후 오픈AI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네이버의 ‘멀티모델 AI’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첫 해외 거점을 마련한 엔트로픽은 한국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를 클로드 활용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다. 엔트로픽은 네이버가 수천 명 규모의 개발 조직에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도입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특정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와 글로벌 AI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모델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업무 목적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외부 AI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 조직이다. 네이버는 클로드 코드를 개발 현장에 도입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체 AI 기술도 다양한 서비스와 업무 환경에 적용하며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삼성은 오픈AI…네이버는 멀티모델
국내 AI 도입 전략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앞서 오픈AI는 삼성전자와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전 임직원과 글로벌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텍스를 도입하며 AI 업무 혁신에 나섰다. 오픈AI는 이를 자사 최대 규모의 기업 AI 도입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반면 네이버는 특정 글로벌 AI 기업과 독점 관계를 맺기보다 자체 모델과 외부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 성능과 비용, 보안,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전략이 향후 오픈AI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용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 간 공식적인 협력 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다.

◆ AI 생태계 경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과 글로벌 AI 모델을 병행 활용하는 사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하나의 AI 모델만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특성과 성능, 비용,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 여러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델 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특정 AI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챗GPT와 클로드, 자체 AI 모델을 목적에 맞게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하면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델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엔트로픽과 오픈AI 모두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기업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네이버 역시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인서트애니웨어’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키즈 전용 브랜드 켄(ZEM) 캐릭터 ‘에스곰’을 합성한 모습. /SK텔레콤

SKT, AI 영상합성 기술 경쟁력 입증

ECCV, ‘인서트애니웨어’ 논문 채택
카이스트 주재걸 교수 연구팀과 연구

SK텔레콤이 글로벌 무대에서 AI 영상 분야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AI 영상 합성 기술 ‘인서트애니웨어’ 관련 논문이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에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인서트애니웨어는 영상 촬영 당시 실재하지 않는 사물을 AI로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광고 영상에 특정 제품 이미지를 새로 배치하거나 촬영이 끝난 콘텐츠에 소품·캐릭터·브랜드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연구는 카이스트 주재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핵심은 ‘4D 장면 이해 기술’이다. 영상의 3차원 공간 속 시간의 흐름을 인식해 카메라가 이동하거나 새로 삽입된 사물이 다른 물체에 가려지더라도 위치와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는 사물의 위치와 크기가 흔들리거나 실재로는 가려져야 할 사물이 화면에 그대로 남는 한계가 있었다. 사물 주변의 그림자와 반사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부자연스러웠다.

사용자가 특정 장면에서 사물을 넣을 위치를 지정하면 AI가 해당 위치 정보를 전체 영상으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실제 촬영된 장면처럼 보이도록 위치와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림자 반사, 조명 효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향후 영상 후반 작업, 광고 제작, 가상 제품 배치 등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실제 광고·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AI 영상 합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컴퓨터비전학회는 컴퓨터비전 및 패턴인식학회(CVPR), 국제컴퓨터비전학회(ICCV)와 함께 세계 3대 컴퓨터비전학회로 꼽힌다. /조민선 기자

따능스쿨, ‘AI 활용전문강사’ 민간자격 운영

1·2·3급 체계로 운영
강의 역량 단계별 평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 전문기업 따능스쿨은 민간자격 ‘따능AI활용전문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따능AI활용전문강사는 1·2·3급 체계로 운영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능력과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역량을 단계별로 평가한다.

교육은 따능스쿨이 자체 개발한 한국

어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따능AI’를 활용해 진행된다. 따능AI는 한글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와 영상, 음악, 음성 등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기관(KTR)의 소프트웨어 품질(GS)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따능스쿨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무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IPTV, 지역 케이블TV 의무 송출해야”

케이블 지역채널, 생활정보 전달
SO 지원대상 제외, 미디어기금 제한
IPTV 유료화, 지역성 의무 지지 않아

지역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을 지역방송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TV(IPTV)에 해당 채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5극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에서 경북대 김연식·황경호 교수는 케이블 지역채널의 지역성을 분석한 공동 연구 발표를 통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연식 교수는 케이블 지역채널이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단위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수치로 산출하기 위해 생활밀착성, 자치공론성, 문화생동성, 주민참여성, 경제축진성 등 5개 기준으로 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MI)를 개발했다.

경남·울산 8개 방송사를 분석한 결과 서경방송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JCN 울산중양방송은 경제축진성과 주민참여성에서 강점을 보였다.

지역 채널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도적 혜택에서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SO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매출의 1.5%를 납부하고 있어, 적자를 내는 사업자도 부담은 지지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SO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지역방송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

해결책으로는 미디어기금 지급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성 기준과 관련해서 사업자 유형으로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인력 재교육을 시켜서 퀄리티를 높이고 논평, 해설 등 감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에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IPTV가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하면서 케이블 SO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통신사가 보유한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IPTV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케이블 채널의 중요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IPTV가 지역 기반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과 경쟁을 하면서도 지역성과 관련한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하고 SO 지역 사회 역할 재정의 ‘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근 10년간 SO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15년 12.5%에서 2024년 0.75%로 감소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역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거버넌스와 자원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SO가 하이퍼로컬 미디어와 광역 지역방송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 생활권 단위 정보를 연결하는 중간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공공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원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지역미디어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지방재정특별교부금·수신료 지역 환류분·플랫폼 공공기여금 등을 결합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플랫폼 사업자가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카카오, 카톡 기반 법률 전자문서 구축

로앤컴퍼니·하나금융타이어 ‘맞손’

카카오가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타이어와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 법률 전자문서 서비스를 구축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빌딩에서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타이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국민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추진에 맞춰 이뤄졌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서 사업 주관사인 로앤컴퍼니와 협력하고, 하나금융타이어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운영을 맡는다.

3사는 법률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법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카카



카카오는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타이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카카오 이장범 지갑라이브 리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 하나금융타이어 박용해 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오톡 기반 전자문서 송수신 채널을 제공하며, 로앤컴퍼니의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한다. 해당 문서는 하나금융타이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최빛나 기자